

회복과 새로운 시작

스티븐 하퍼

캐나다 연방총리

“Recovery and New Beginnings “

By the Right Honourable Stephen Harper, Prime Minister of Canada

To order a printed copy of “G8 & G20: The 2010 Canadian Summits”

(Newsdesk Media Group, 2010), please click [here](#).

To download a low-resolution pdf of the full publication, click [here](#).

(Be very patient! It's 62 MB.)

캐나다의 2010년 정상회의의 주제는 “회복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G20, G8 회의에서 캐나다는 서로 의존하는 세계가 이겨내야 할 도전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의 접근방식은 “현명한 주권”의 개념에 근거합니다. 최악의 위기는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지도자들은 세계경제 안에서 주어진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권의 이름으로 편협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장하고 부유해질 수 있는 더 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현명한 주권”이란 이러한 공동 이익의 연장선입니다.

토론토와 무스코카에서 벌어질 토의들은 새롭고 거창한 협의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이미 협의된 내용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집중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과 이행이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있어 필수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G-8, G-20 회원국들의 책임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G-20 회원국이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시장의 강력한 힘으로 부를 생산하고 이를 분배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G-20 회원국이 필요합니다.

불황의 마지막 단계를 지나 회복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G-20 회원국이 중요하다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4가지 문제는 금융제 개혁, 경기부양, 국제기구 개혁, 국제무역 및 경제성장 전술입니다.

금융제에 대한 감독과 개혁부터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최근 세계 금융제에서 발생한 문제들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캐나다 금융제는 무너지지 않았으며 정부로부터 구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들 몇 개를 가지고 있게 되었으며 그 은행들은 다 사기업들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과 무디스 신용평가사는 최근 캐나다의 은행들이 세계에서 가장 건실한 은행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세계 금융위기에서 캐나다 은행들이 보여준 관리능력은 캐나다의 금융감독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방식의 금융감독이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 회원국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의 금융시스템은 다시 만들어져야 하며 국제사회의 분석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세계경제에 주는 위험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국가의 경제가 필요 없는 위험과 악영향에 노출되게 됩니다.

우리는 G-20 회원국들을 통해 금융감독을 더 강하게 하고 감독기관들 사이에 정보공유를 하는 것을 원하기는 하겠지만 캐나다는 지나치거나, 일방적이거나, 징벌적인 감독을 금융계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G-20 회원국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입니다. 우리는 경기부양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부담이 따릅니다.

재정확장, 정부지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불황에는 필수입니다.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고용률과 이자율이 제로에 가까웠을 때는 경제이론이 명확했습니다. 언급된 방법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들은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재정적자에서 벗어날 출구전략을 찾지 못할 때 직면하는 위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경제계획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캐나다는 2년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마련했던 이코노믹 액션 플랜을 종료할 것입니다.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했던 약속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집권 중반까지 점차적으로 재정적자를 없애는 계획도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2009년의 급격한 경제수축에도 불구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의 부채와 재정적자로 인해 앞으로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20 회원국이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강한, 유지가능한, 균형잡힌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뒤로 하고 이 위기가 오게 된 근본적 원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G-20 회원국은 국제 통화기금, 세계은행, 기타 다국적 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이 세계경제 성장과 안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들 금융기관의 적법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하고 이들 금융기관이 도와주는 개발 도상국들의 주장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무역 및 경제성장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 세대의 경제적 풍요는 국제무역 증가의 도움이 컸습니다. 무역증가와 보호무역주의 타파는 세계경제에 필수적이며 수백만명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G-20 회원국은 모든 회의 때 마다 이를 언급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우리들의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국가들의 행위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로 대공황을 불러왔던 보호무역주의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캐나다는 자유무역과 개방된 시장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경기부양책은 관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관세를 낮추어 캐나다를 제조업 무 관세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2006년 이후 우리는 8개국과 추가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유럽연합을 포함한 6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할 것이며 관세장벽을 낮추거나 없애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G-20 회원국이 함께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은 경기회복은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 일부만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공통된 믿음입니다. 이는 주권이 가장 개화되었을 때 나오는 행위입니다. 이는 그냥 국제기구의 구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 개선책을 얘기해도 먹혀 들지 않을 것입니다.

G-20 회원국이 경제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G-8 회원국들은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속해 있는 선진국들은 민주주의, 개발, 평화, 안보 등을 전파하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지 확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즘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적들은 전략적 해상로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날씨의 변화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핵무기 보유 국가들간의 긴장은 많이 사라졌지만 새로운 단체, 특히 비국가 단체로 핵무기가 넘어가는 상황은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수월하지 않은 위협들은 한 국가 혼자 노력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G-8 회원국들은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매년 50만명 이상의 산모들이 임신중에 사망하거나 9백만명의 어린이가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많은 생명과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끄럽게도 많은 생명이 국제사회가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간단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라졌습니다. 크게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은 깨끗한 물과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G-8정상회의 의장국으로써 캐나다는 건강한 임신, 건강한 산모, 건강한 아기의 수를 늘리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이는 의료진의 교육 및 지원, 영양공급, 폐렴, 설사, 말라리아, 패혈증 등 각종 질병 치료, 에이즈 등 성병치료와 약품공급, 가족계획, 예방접종, 깨끗한 물, 공중위생과 같은 여러 가지 단계별 개입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G-20과 G-8정상회의는 세계경제 그리고 재정 불확실 속에 많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해결이 모든 회원국들의 공통된 책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집중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올해 6월에 열릴 G-8, G-20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써 캐나다는 이러한 당면한 도전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나는 경제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지지함에 있어서 우리의 세계 각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